

◀기쁜 우리 날들▶ **힘든 대심방**

김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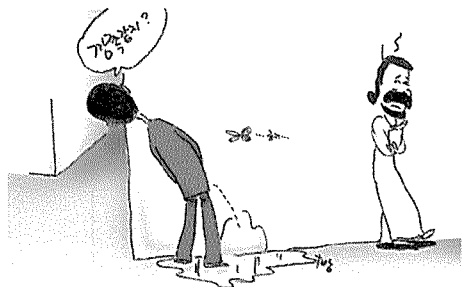
당신의 이름 품고
심방하고 돌아와
두 손안에 얼굴 묻습니다.

꼭여져 속인
꽃 한 송이 즐기처럼
겨우 한 가닥 힘으로
모두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나를 벗고서
숨어살고 싶다 했습니다.

이 밤도
잠 못 드는 저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실 거냐
내 책임 아니라며 주님께 떠안기고
무겁게 집으로 향합니다.

새벽으로 넘어간 밤길인데
모처럼 보인 겨울 달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주님께서서
'나와 함께 뜬눈으로
밤 지새워 달라' 고만 하셨다며
잡잡마다 은색 달빛
비추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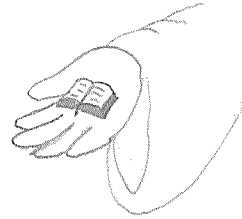
◀그림 말씀▶ **감쪽같이?.....**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10권 3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8월 17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

- '행복이 전염됩니다' 중에서 -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 6:29)

그렇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주한 사역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연스런 열매요 결과들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기▶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고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이다

◀인품 따라 행하기▶

하나님 밖에 없음을
불평하는 자는
바다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물고기와 같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갈보리	다 같이
*찬 송 Hymn	44장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송 Hymn	318장	
기도 Pray		김반석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3:1-1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배경만 아름다웠던 구걸자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19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응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2,663 총액:\$ 447,147.74

갈보리 성경 100독: 33독 황경임 집사 34독 고대아 권사

◆8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특송	주차안내	안 내
3	권광순	김선화		최현철 황준직	이수원
10	김교섭	민선희	4구역		정희자
17	김반석	박은경	6구역		노은숙
24	김순자	박영태	5구역		백제성
31	김영길	신경화	7구역		

◆8월 교회력◆

	주일 & 예배	모임
3		구역예배(8)
10		대심방(4-13)
17		구역예배(22)
24		
31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월례회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토요 6:00 pm

- 교우소식
<들 떡> 안재인
* “우리 아기 들의 기쁨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행복합니다”
- 안준희, 신현연 집사 -
<목사고시 합격> 김창식 전도사. 현재 LA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중입니다. 축하합니다(001-714-736-9624)
<초청한국방문> 김성국 목사. 21일 - 28일
- 『겨울 축복심방』을 두 주간에 걸쳐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2008년 갈보리성경100독
*혼자 성경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을 누가 보았다면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 금주의 수요예배
*배로 세계를 돌며 선교하는 “돌로스” 호의 선교사역에 대한 소개와 간증의 시간으로 갖습니다. <강사: 홍연숙>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5:50분>
*아직 세상의 목소리가 울려지기 전,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소리는 무척 우렁찬 소리로 울려 질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정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한 줄로도 긴 생각▶

하루에 한번쯤은 누워서 하늘을 보라고 밤이 온다

- 김 목사 -